

# 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이 우울과 만족도,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계화<sup>1</sup> · 이현지<sup>2</sup>

<sup>1</sup>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sup>2</sup>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Depression, Level of Satisfaction and Death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Jo, Kae-Hwa<sup>1</sup> · Lee, Hyun Ji<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nd death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consisted of 232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self-efficacy, depression, satisfaction with life, and death attitude.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PC WIN. 12.0 program. **Results:** Death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frequency of death ideation. Death attitude for college students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death attitude for college students was life satisfaction. **Conclusion:** The above findings indicate that death attitude for college students is influenced by self-efficacy,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death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and to gi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death is needed for college students.

**Key words:** Students, Life, Satisfaction, Death, Attitude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후기 혹은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 시기는 발달단계상의 특성으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다른 인생주기에 비해 두드러지게 내부적, 외부적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적 사회에서 자아정체감의 혼돈은 스트레스 또는 갈등상황에 직면하여 죽음을 선택하거나, 무력감과 우울의 결과로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감이 저하되어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한다(Donald, Dower, Correa-Velez, & Jones, 2006).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삶의 만족과 의미, 죽음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미래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성공지향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의 획일성 및 부패와 불신, 성인문화의 폭력성과 권위주의적 경향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가치가 싹틀 수 있는 조건을 저해하며 자공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Kim, 2004). 자공심은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인간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특성이다. 자존감이 낮은 경우, 자신의 감정과 욕구표현에 어려움을 겪으며 갈등조절력이 떨어져 삶의 만족도가 낮다(Pyon & Kang, 2002).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 사회학적 특징은 대학생들의 자아효능감, 우울 또는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상태가 죽음태도에 영향을 미칠

주요어 : 학생, 삶, 만족, 죽음, 태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o, Kae Hwa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5 Fax: 82-53-621-4106 E-mail: jokw@cu.ac.kr

투고일 : 2007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8년 3월 18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 수행 신념으로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하며, 자신감은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다(Vealey, 1986). 따라서 자아효능감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관계를 맺는다. Makaremi (2000)는 대학생의 개인적 수행기준과 자아효능감 간에 차이가 클 때 우울이 유발됨을 보고했으며 Cervone, Kopp, Shauman과 Scott (1994)도 낮은 자아효능감이 우울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목표수준과 자아효능감 간의 차이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자기비하적 성향을 띠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Hegel, Dietrich, Seville와 Jordan (2004)은 자아효능감과 우울은 죽음의 한 유형인 자살행위를 예측하는 단독 요인임을 지적하였으며, Hong (1995)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스트레스 수준의 상황에서 자아효능감이 낮은 청소년이 높은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이나 다른 정신적인 어려움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이 직면한 스트레스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러한 스트레스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심리적 대처요인인 자아효능감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울은 불쾌한 기분, 절망감, 비판적인 감정 또는 슬픔과 같은 지속적인 증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개인의 일상 활동에서의 흥미나 기쁨의 상실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청소년 후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은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많은 반면 개인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인지 및 사고패턴으로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며, 우울한 사람은 자신과 환경,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인지체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비난과 파멸로 왜곡되게 지각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이나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부정적 죽음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Kim, 2007). 이와 같이 개인의 태도는 자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의 본질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의 죽음태도를 연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울 행동을 예측하여 사회 병리 상태를 예방한다는 기대 때문이다.

삶의 만족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의미하며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Diener, 2000). 우리나라 대학생이 생각하는 만족감은 자아수용성이나 가족정체성,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Kim & Lim, 2003). 한편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죽음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자아효능감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다(Hong, 1995). 즉, 자아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삶과 죽음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Chung, 1992)를 고려할 때,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죽음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ark과 Kwon (2006)은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진로정체감을 제시하였으며,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기로에 선 대학생의 발달단계상 과제라 할 수 있는 진로정체감 형성은 개인의 자아효능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태도에 관한 관련성은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청소년 후기의 발달단계에 속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은 부모로부터의 독립, 내면화된 도덕성, 직업선택 등의 발달과업을 이루고자 자기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질문과 자기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한 이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정체 혼미에 빠지기 쉽고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며 자아효능감 저하로 인해 우울과 삶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자살 충동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태도를 형성하게 된다(Jo, Lee, & Lee, 2005).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경, 즉 핵가족의 증가로 인한 가정에서의 죽음학습 부재, 현대의료에 있어 인간의 소외화, 의학의 발달로 인한 죽음정의의 혼란, 인구의 고령화, 질병구조와 죽음 유형의 변화, 진정한 웰빙의 추구 등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다각도에서 조명하게 한다. 우리나라 간호학 분야 연구에서는 죽음의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질문지법과 면담법을 이용한 것으로(Jo et al., 2005; Kim & Lim, 2002),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효능감 등과 같은 심리적 기제가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비록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우울(Bandura, 1997; Cervone et al., 1994), 자아효능감과 삶의 만족도(Park & Kwon, 2006), 우울과 죽음태도의 관련성(Kim, 2004)과 같이 독립적인 연관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자아효능감과 우울, 만족감 간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죽음태도에 이르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자아효능감이 우울과 만족도, 죽음태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우울과 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죽음태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인식하는 자아효능감과 우울감, 만족도, 그리고 죽음태도와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여 건전한 죽음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효능감, 우울감, 만족도, 죽음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우울감, 만족도 그리고 죽음태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효능감과 우울감, 만족도, 그리고 죽음태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넷째, 대학생의 자아효능감, 우울감, 만족도, 죽음태도의 경로를 분석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의 개념적 틀

상기 제시된 청소년의 심리적 기제와 죽음태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기존연구 결과를 근거로, 자아효능감이 우울과 만족도를 통해 죽음태도에 이르는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Figure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연구모형은 두 단계를 거쳐 검증된다. 먼저 대학생이 인지하는 자아효능감이 우울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아효능감과 우울 및 만족도가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이 우울과 만족도를 통해 죽음태도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을 검증한다.

###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이 우울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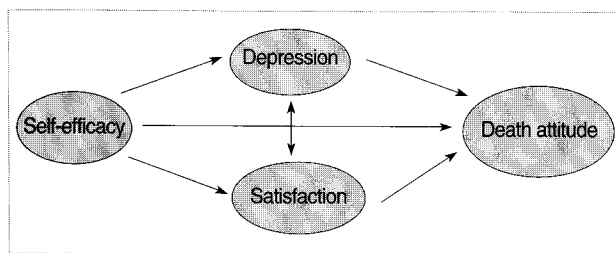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색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사 연구로, 횡단면적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 3.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대구 경북지역에 위치한 3개의 대학에 2007년 1학기에 등록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은 비무작위 편의추출로 선정되었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으며 연구 대상인 학생들에게는 서면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7년 4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 대학의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스스로 기록하게 하였고 설문지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질문하도록 하여 이해를 도왔다.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alpha$ )은 .05, effect size는 .30, 검정력( $1-\beta$ )은 .80으로 선정하였을 때 각 대학의 최소인원은 90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을 고려하여 최소 100명을 목표인원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 중 249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32부(93.2%)가 분석되었다.

### 4. 연구 도구

#### 1) 자아효능감

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은 Bandura (1997)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근거로 개발된 객관적 측정도구를 Son (198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대학생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16개의 발표장면을 근거로 자아효능감 기대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Bandura (1997)의 평정법에 따라 10점 간격의 100점 척도를 사용하여 총점을 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 기대 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88로 나타났다.

#### 2) 우울

대학생의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우울한 증상을 자기 평가하는 Zung, Richards와 Short (1965)가 개발한 자기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Lee (199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심리적 우울성향 10문항과 생리적 우울성향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유형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81로 나타났다.

### 3) 만족도

대학생의 전반적 만족도는 Chung (1992)이 개발한 만족도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자기, 학교생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리고 사회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79로 나타났다.

### 4) 죽음태도

대학생이 인지하는 죽음태도는 Collett와 Lester (1969)가 개발한 죽음불안도구(Fear of Death Scale, FODS)를 토대로 Chung (199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죽음태도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죽음에 대한 불안, 자살에 대한 태도, 내세관, 안락사, 그리고 죽음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문항으로 Likert 유형의 4점 척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Cronbach's alpha는 .75로 나타났다.

## 5. 자료 분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효능감, 우울, 만족도, 죽음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우울, 만족도, 죽음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우울, 만족도, 죽음태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이 우울과 만족도를 경유하여 죽음태도에 이르는 제시된 개념적 틀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제시된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경로분석은 모델을 구성하는 가정들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구조함수에서 시작한다(Bohrnstedt & Knoke, 1994).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변인, 즉 자아효능감(A), 우울(B), 만족도(C), 죽음태도(D)는 세 개의 방정식 속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방정식은 자아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두 번째 방정식은 자아

효능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마지막 세 번째 방정식은 자아효능감과 우울, 만족도가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아효능감이 죽음태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우울과 만족도를 경유하여 죽음태도에 이르는 가설적 관계를 분석하게 되며, 구체적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 = P_{BA}A + P_{cu}U$$

$$C = P_{CA}A + P_{cv}V$$

$$D = P_{DA}A + P_{DB}B + P_{DC}C + P_{DW}W$$

상기 공식에서 P는 경로계수를 의미하며, U, V, W는 B와 C, D 함수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 즉 잔여치(residual factors)를 의미한다.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총 232명 중 남성이 104명(44.8%), 여성이 128명(55.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학년 1.7%, 2학년 14.7%, 3학년 26.7%, 4학년 56.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전공영역은 인문사회계열이 100명(43.1%), 자연공학계열이 54명(23.3%), 법정계열이 33명(14.2%), 사범대계열이 18명(7.8%), 경상계열 10명(4.3%), 예체능계열 9명(3.9%), 약학의대계열이 8명(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평소 죽음 관련 생각에 관한 빈도를 살펴본 결과, 가끔 있음이 104명(4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주있음이 68명(29.3%), 전혀없음이 60명(25.9%)으로 나타났다. 죽음 관련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로는 타인의 죽음이 72명(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문제 56명(24.2%), 취업 및 진로가 51명(22%), 기타가 43명(18.5%), 그리고 친구문제가 10명(4.3%)으로 나타났다.

### 2. 자아효능감, 우울, 만족도, 그리고 죽음태도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효능감, 우울, 만족도, 그리고 죽음태도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자아효능감의 평균 평점은 37.72로 중간 이하의 비교적 낮은 평균평점이 나타났으며, 우울의 정도는 2.15로 중간 이상의 평균평점이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만족도는 2.63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평균평점이 나타났으며, 죽음태도는 1.66의 낮은 점수가 나타나 긍정적 태도보다 부정적 태도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우울, 만족도 및 죽음태도

분석결과, 성별, 학년, 전공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으나 Table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평소 죽음에 대한 생각의 정도에 따라(자주있음, 가끔있음, 전혀없음) 죽음태도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 죽음생각을 한 학생들보다 죽음에 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평소하지 않은 학생들이 죽음에 관해 자주 생각하거나 가끔씩 생각하는 학생에 비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우울정도는 죽음을 가끔 생각하는 사람이 자주 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이 인지하는 자아효능감, 우울, 만족도, 그리고 죽음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이 인지하는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 $r=-.381, p<.001$ )을 느끼는 정도는 낮아지는 반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r=.425, p<.001$ )는 높아지며, 죽음태도( $r=.190, p<.01$ )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이 인지하는 우울의 정도는 삶의 만족도( $r=-.505, p<.001$ )와 죽음태도( $r=-.212, p<.01$ )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만족도와 죽음태도( $r=.159, p<.05$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Table 1. Difference of Death Attitud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by Death Thought (N=232)

Death thought	Death attitude M (SD)	Satisfaction M (SD)	Depression M (SD)
Frequently	1.62 (0.19) <sup>a</sup>	2.67 (0.49) <sup>a</sup>	2.06 (0.36) <sup>a</sup>
Often	1.65 (0.21) <sup>a</sup>	2.33 (0.52) <sup>b</sup>	2.28 (0.35) <sup>b</sup>
Never	1.79 (0.19) <sup>b</sup>	2.81 (0.40) <sup>b</sup>	2.03 (0.43) <sup>a</sup>
F	10.497**	12.166**	7.302*

\*\*p<.01; \*\*\*p<.001. Duncan test: a<b.

5. 대학생의 자아효능감, 우울, 만족도, 그리고 죽음태도 간의 경로

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이 우울과 만족도를 통해 죽음태도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우울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중 죽음에 대한 생각을 통제한 후 자아효능감이 우울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3). 분석 결과, 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은 우울( $\beta=-.338, p<.001$ )과 만족도( $\beta=.417, p<.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죽음태도를 예측하는데 자아효능감( $\beta=.307, p<.001$ )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기여를 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아효능감, 우울, 만족도는 죽음 생각을 포함하여 죽음태도를 예측하는 변량의 약 38% ( $R^2=.384$ )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이 죽음태도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경로모형에서 인과관계의 효과를 살펴보면, 자아효능감은 죽음태도에 .307의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065)과 만족도(.084)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Table 2.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N=232)

Variables	1	2	3	4
Self-efficacy	-			
Depression	-.381***	-		
Satisfaction	.425***	-.505***	-	
Death attitude	.190**	-.212**	.159*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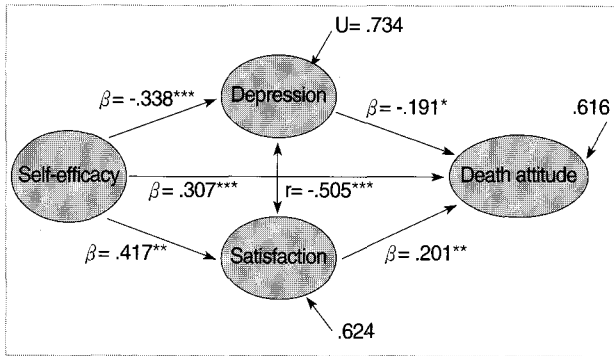
Table 3. Multiple Regression of Depression, Satisfaction, and Death Attitude (N=232)

Predictor	Dependent	B	$\beta$	t	R <sup>2</sup>	F	
Self-efficacy	Depression	-0.104	-.338	5.040***	.266	12.701	U=.734
Death thought		0.220	.231	2.458**			
Self-efficacy	Satisfaction	0.067	.417	6.916***	.376	37.822	V=.624
Death thought		1.048	.280	4.646***			
Self-efficacy	Death attitude	0.051	.307	4.554***	.384	24.194	W=.616
Depression		-0.807	-.191	-2.283*			
Satisfaction		0.371	.201	2.515**			
Death thought		-1.160	-.267	-3.274**			

\*p<.05; \*\*p<.01; \*\*\*p<.001. U, V, W=residual factors.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self-efficacy on Death Attitude (N=232)

Predictor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elf-efficacy	.307	Through depression: .065 Through satisfaction: .084	.456



**Figure 2.** Results of path analysis.

\*p<.05; \*\*p<.01; \*\*\*p<.001.

다. 경로 분석 결과, 연구의 개념적 틀을 근거로 한 가설은 모두 지지 되었으며, 본 연구의 최종 경로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 논 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부분이라고 볼 때 죽음을 어떻게 수용하며 다루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대학생의 정체감 형성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제이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들의 평소 죽음관련 생각에 관한 빈도는 자주 생각한다고 29.3%, 가끔 생각한다고 44.8%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죽음에 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198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인지를 연구한 결과 자주인지 52%, 가끔인지 15.6%, 인지안함 32.3%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성을 보인다. 또한 죽음과 삶의 연상 단어수가 많을수록 죽음에 대해 '자주인지' 한다고 밝혀진 Lee 등(1983)의 연구는 삶이 죽음과 외적으로는 다르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Cooper와 Barnett (2005)의 간호학과 신입생과 졸업생을 비교할 때 학년이 증가할수록 죽음불안이 감소한다는 연구는 Lee 등(1983)의 고학년보다 저학년일수록 죽음인지도가 높은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환자와 접촉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죽음불안을 교육과 경험을 통해 원만히 처리할수록 죽음인지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어 죽음 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죽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로는 타인의 죽음,

가정문제, 취업과 진로, 기타, 그리고 친구문제 순으로 나타나 죽음인지 동기가 외부적인데 비해 Lee 등(1983)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심리적 갈등, 자신의 생사관과 관련된 동기,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경험, 자신의 인생관, 무서운 경험 등의 순으로 내부적 요인이 많아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본 연구의 경우 일반 대학생인데 반해 Lee 등(1983)의 연구에서는 의료계 종사자와 의·간호학과 학생으로 전공분야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현대 사회의 성공과 신분 지향적 분위기가 죽음인지 동기를 외부적 요인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죽음 생각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Jacobs (1991)는 장기간의 가족갈등, 실패, 점진적인 사회적 고립, 희망 상실과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이유를 들고 있고, Donald 등(2006)은 자아정체감의 혼돈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스트레스 또는 갈등상황에 직면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될 경우 가장 손쉬운 해결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한다고 하였는데, 죽음생각은 자신의 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비애나 허무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담론을 통한 삶과 죽음의 지식습득과 올바른 태도함양을 위한 교육적 환경조성은 대학생으로 하여금 보다 나은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평소 죽음생각을 한 학생들보다 죽음에 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평소하지 않은 학생들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 우울정도 또한 유의하게 낮았다. 죽음생각은 우울과 연관되어 자살행동에 이른다는 연구(Kim, 2004)와 죽음을 자주 생각한 학생들이 가끔, 혹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학생에 비해 자살할 수 있다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연구(Chung, 1992)와 일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Jo 등(2005)의 대학생의 죽음태도 유형에서 밝힌 생사분리-연결형은 삶과 죽음을 철저히 단절로 인식하는 한편, 죽음 저편에는 현세적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평온과 안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지닌 유형으로 죽음이 최상의 실제적 해답이 되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마지막 위안이라는 견해를 보인 것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Chung (1992)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에 대한 태도를 묻는 항목 중 죽음을 삶의 고통에서의 해방으로 보는 관점이 35%로 나타났으며 가치관과 자살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Chan, Tiwari, Leung, Ho와 Cerulli (2007)가 청소년기는 죽음을 삶으로부터의 도피적,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한

연구와 유사하다. 한편 Chung (1992)은 죽음으로 삶의 고통을 피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죽음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전체의 68%로 나타나 자살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자살부정을 보이고 있어 Chan 등 (2007)이 보고한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근래 한국사회에서도 청소년 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가치관 정립의 부재와 정체성 상실, 기성세대의 역할모델 부재 등은 자살 시도의 영향인자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죽음을 인위적으로 양산 가능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삶의 사회적 공동체를 근원적으로 반생명적인 분위기로 증폭할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우울 정도를 낮추고 만족감을 증가시켜 죽음생각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며 죽음이 단순한 개별적 사건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라는 맥락 안에서 죽음을 공유하는 책임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Chung (1992)의 연구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죽음교육을 통해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더불어 대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죽음생각과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효능감과 우울, 만족도와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죽음에 관한 생각에 대한 빈도가 낮을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전반적 만족도와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죽음태도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akaremi (200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효능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우울한 사람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낮은 자아효능감을 보고했다. Son (1984)도 자아효능감에 대한 기대와 목표성취 수준 간의 큰 차이가 우울을 유발했는데 이는 목표성취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낮은 자아효능감을 갖기 때문이었다. Cervone 등(1994)과 Hong (1995)도 낮은 자아효능감이 우울을 유발하며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덜 우울하다고 지적한 점은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업무수행이나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우울해지는 경향이 적다는 연구(Hahn, Chon, Tak, Lee, & Lee, 1992)와 우울한 사람이 더 낮은 자아효능감을 갖는다는 연구(Bandura, 1997; Cervone et al., 1994; Makaremi, 2000)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우울 증재를 할 때에는 우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동시에 자아효능감을 통한 우울에 대한 개입을 함께 고려할 때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실현을 위한 준비기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울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빼앗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우울은 성인의 우울

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더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 Kim (2004)은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실태와 인구·문화·사회학적 특징은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해 준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적절한 심리적 이유를 통한 자아개념 확립에 실패할 경우, 청소년은 적절한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성취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가정, 학교, 사회 체계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정신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심리적 압박감과 무기력, 의욕상실, 우울 등을 경험하거나 신체적으로는 식욕감소, 체중변화 등의 부정적 건강상태를 경험한다(Burns, Andrews, & Szabo, 2002).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학업, 대학입시, 취업과 진로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우울은 대학생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며 그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우울감소와 예방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아효능감과 우울 및 만족도가 죽음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자아효능감이 다른 두 변인에 비해 죽음태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Chung (1992)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해 부정적이며 긍정적인 죽음태도를 보인다고 했으며 Kao와 Lusk (1997)는 죽음태도는 자신의 생활과 생애를 통해 받은 자극과 경험들을 토대로 축적되고 변화되어 개인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만족감을 죽음태도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였다. 한편 Park과 Kwon (2006)은 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혔는데, 자존감은 자신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대학생의 죽음태도 형성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Hong, Yi와 Park (2000)은 대학생의 지각된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신체상과 이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 요구되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대학생의 긍정적 죽음태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효능감, 우울, 만족도가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현 시대의 깊이 있는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긍정적 죽음태도 형성과 양질의 죽음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는 대구 경북지역에 위치한 3개의 대학 2007년 1학기에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총 232명을 대상으로 2007년 4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 변수는 일반적 특성, 죽음관련특성, 죽음태도, 우울, 만족도, 자아효능감 등이었으며 연구도구는 본 연구에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Cronbach's alpha=.75-.88). 자료분석은 SPSS/PC Win 12.0를 이용하여 빈도, 서술통계,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자아효능감이 우울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자아효능감이 죽음태도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소 죽음에 관해 자주 생각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아효능감이 낮았으며 우울한 경향을 보이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자아효능감과 우울 및 만족도가 죽음생각을 포함하여 대학생의 죽음태도 변량을 설명하는데 총 3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은 죽음태도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우울과 만족도를 경유하여 죽음태도에 간접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자아효능감이 낮은 대학생은 부정적 죽음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긍정적인 죽음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효능감과 우울,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기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건강한 죽음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한국적 사고와 문화에 적합한 자아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교육과정에서의 적용이 시급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죽음태도 형성을 위한 대학교육과정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를 다양하게 표집하여 죽음태도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ohrnstedt, G., & Knoke, D. (1994). *Statistics for social data analysis* (3rd ed.). Itasca, IL: F. E. Peacock Publishers.
- Burns, J. M., Andrews, G., & Szabo, M. (2002). Depression in young people: what causes it and can we prevent it?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7, S93-96.
- Cervone, D., Kopp, D. A., Shauman, L., & Scott, W. D. (1994). Mood,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standards: Lower moods induced higher standards for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99-512.
- Chan, K. L., Tiwari, A., Leung, W. C., Ho, H. W., & Cerulli, C. (2007). Common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physical assault amo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Hong Kong. *Violence and Victims*, 22, 290-303.
- Chung, S. K. (1992). *A relational study on attitudes toward death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values of juveni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Collett, L. J., & Lester, D. (1969).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72, 179-181.
- Cooper, J., & Barnett, M. (2005). Aspects of caring for dying patients which cause anxiety to first year student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Palliative Nursing*, 11, 423-430.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The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Donald, M., Dower, J., Correa-Velez, I., & Jones, M. (2006).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medically serious suicide attempts: a comparison of hospital-based with population-based samples of young adults.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 87-96.
- Hahn, D. W., Chon, K. K., Tak, J. K., Lee, C. H., & Lee, K. H. (1992). *A study on life mal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anxiety, depression and somat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gel, M. T., Dietrich, A. J., Seville, J. L., & Jordan, C. B. (2004). Training residents in problem-solving treatment of depression: a pilot feasibility and impact study. *Family Medicine*, 36, 204-208.
- Hong, H. Y. (1995). *The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Hong, Y. L., Yi, G. E., & Park, H. S. (2000). A structural model for health promo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1, 333-346.
- Jacobs, D. (1991). *Suicide understanding and repondin*.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Jo, K. H., Lee, H. J., & Lee, Y. J. (2005). Types of students' death attitudes majoring in human service area: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829-841.



- Kao, S. F., & Lusk, B. (1997). Attitudes of Asian and American 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s death and dy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4, 438-443.
- Kim, K. H. (2004). Depression and suicide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 55-68.
- Kim, M. A., & Lim, S. H. (2002). A Q-study on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6, 43-54.
- Kim, M. S., & Lim, J. Y. (2003). The structure of good life and the relationship with subjective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8, 83-97.
- Lee, H. J., & Kim, M. H. (2007). A path model for self-identity and hopelessness to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14, 243-264.
- Lee, J. H. (1994). *Depressive symptoms in acute and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 Ang University, Seoul.
- Lee, K. H., Kim, H. S., Na, C., Kwon, H. J., Kim, S. H., & Min, B. K. (1983). A study on the death awareness among health care personnels. *The Official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of Korea*, 15, 174-186.
- Makaremi, A. (2000). Self-efficacy and depression among Irania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86, 386-388.
- Park, H. S., & Kwon, B. S. (2006).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Nursing*, 15, 48-56.
- Pyon, B. K., & Kang, S. K. (2002). A study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host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 269-291.
- Son, M. J. (1984). *The mechanism and the effectiveness of emotional image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Vealey, R. S. (1986).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221-246.
- Zung, W. W., Richards, C. B., & Short, M. J. (1965). Self-rating depression scale in an outpatient clinic. Further validation of the SD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3, 508-515.